

Post Chavez, 변화와 전망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베네수엘라 대선결과 / 2

1. 선거결과
2. 당선자개요
3. 대통령 재선거 실시배경
4. 후보 정책 비교

II. 차기정부 전망 및 과제 / 8

1. 마두로정부 전망
2. 주요과제

III. 주변국 정세와 정책변화 / 12

1. 쿠바
2. 에콰도르
3. 아르헨티나
4. 콜롬비아

IV. 우리기업 진출전략 / 26

1. 베네수엘라
2. 쿠바
3. 에콰도르
4. 아르헨티나
5. 콜롬비아

요 약

‘13.4.14(일)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마두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에는 차베스가 직접 지목한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과 작년 대권후보인 엔리케 카프릴레스가 출마하였다. 차베스 집권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서민층 중심의 차베스 지지세력과 변화를 갈망하는 반 차베스 세력 간의 대결이었다.

신정부는 기본적으로 차베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과제로는 정치적 안정 추구, 재정적자 해결, 석유산업 의존도 개선, 폭력 및 치안불안 해결 등이 있다.

마두로 신정부는 단기적으로 차베스의 반미의지를 계승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08년 이후 차관을 지원 중인 중국과는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는 ALBA(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를 통해 중남미 좌파 그룹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지만 앞으로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신규 회원국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Mercosur(남미공동시장)을 통한 지역연합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베네수엘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신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인맥구축,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조 및 대중소 동반진출, 경제공동체를 통한 우회진출을 주요 전략으로 고려해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 석유매장량, Mercosur 진출의 기반이 되는 생산기지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현재 정치적 리스크, 외환규제 등으로 직접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ALBA 및 Mercosur 회원국을 통한 우회진출을 고려한다면 각종 수입 쿼터 활용, 가상통화인 수크레를 통한 외환규제 피해 감소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

I. 베네수엘라 대선결과

1. 선거결과

□ 결과

- '13.4.14 치러진 재선거에서 집권여당(PSUV)의 니콜라스 마두로 후보가 전체 유효득표수의 50.66%인 7,505,338표를 얻어 승리, 향후 2019년까지 6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됨
- 통합야당의 엔리케 카프릴레스는 7,270,403표를 얻으며 전체 49.07%의 표차로 아쉽게 패함

2. 당선자 개요

□ 인적사항

- 이름: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Nicolás Maduro Moros)
 - 출생연도/지역: 1962.11.23(50세), 카라카스
 - 차베스와의 관계
 - 마두로는 지하철 노조지도자로 정계에 입문하여 쿠데타 실패로 투옥된 차베스의 구명운동(1994), 차베스 선거캠프에서의 활약으로 차베스와 인연을 맺음(1998)
 - '06.8~'13.1까지 외교장관을 역임하며 차베스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변인으로 활약함
- * 쿠바/콜롬비아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Mercosur가입 등 외교적 역량 높이 평가

○ 주요이력

- '05.1~ '06.8 베네수엘라 제3대 국회의장
- '06.8.9 ~ '13.1.15 베네수엘라 외무부장관
- '12.10.13 ~ '13.3.8 베네수엘라 부통령
- '13.3.5~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
- '13.4.14 베네수엘라 대통령 재선거 당선

< 유세중인 마두로 대통령 >



□ 당선주요 요인

- 차베스는 작년 12월 4차 암수술을 위해 쿠바로 출발하기 전 전 국무위원과 국민 앞에서 유고 발생 시 당시 부통령인 마두로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여 줄 것을 요청

- 마두로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보다는 **차베스의 후계자**임을 앞세워 차베스가 추진하던 볼리바르 혁명을 완수할 것을 강며 차베스 추종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냄

< 야권 후보, 엔리케 카프릴레스는 누구? >

- **이름:** 엔리케 카프릴레스 라돈스키 (Henrique Capriles Radonski)
- **출생연도/지역:** 1972.7.11, 카라카스
 - * 유럽계 이민 세대 (모친: 폴란드·러시아계, 부친 네덜란드계)
- **정치성향:** 중도좌파
 - 친기업성향으로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의 실용좌파 추구
 - 중산층, 여성이 주요 지지세력으로 각종 사회복지정책 추진을 공약으로 세움
- **정치이력**
 - 변호사 출신으로 1998년 최연소 국회의원(25세), 2000년 바루타시장 역임
 - 2002년에는 베네수엘라 제2의 주인 미란다주에서 당시 2인자(부통령)였던 디오스다도 카베요 후보를 물리침으로써 차베스 및 지지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
 - '12.10.7 대선'의 야당통합연대(MUD) 단일후보로 출마 660만표(45%)득표. 이는 차베스집권 기간 중 야당후보로는 최다 득표임
 - '12.12 미란다 주지사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여당후보인 엘리아스 하우아를 재차 물리침
- **마두로 당선자와의 향후 협력 가능성**
 - 젊은 시절부터 반차베스파로서 바루타시장시에는 차베스가 3일간 권좌에서 물러났던 짧은 쿠데타시 소요사태로 투옥되었다 무죄로 방면된 적도 있어서 현 집권세력과 타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대통령 재선거 실시배경

□ 차베스대통령의 임기 중 사망

- '12.10 대선'승리로 4선에 성공한 차베스대통령이 암 재발로 투병 중 '13.3.5 사망하여 14년여 장기집권 마감

-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고 차베스대통령이 4선 취임 선서를 하지 않고 무기연기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나 새로운 임기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
- 이에 '13.3.8 장례식 종료 후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에 취임. 선거관리위원회는 장례식 하루 뒤 '13.4.14에 대통령 재선거 실시를 결정.

□ 선거 판전 포인트

- 이번 선거는 마두로나 카프릴레스 후보자 개인이나 정당에 대한 투표라기보다는 차베스집권 이전(1999년)의 과거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서민층 중심의 차베스 지지세력과 변화를 갈망하는 반 차베스세력간의 대결로 평가됨
- 차베스에 대한 추모열기가 식지 않은 가운데서 집권여당인 연합 사회주의당(PSUV)은 언론매체 장악, 자금력, 10일이라는 짧은 선거준비 기간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한 입장 차지함.
 - Dataanalysis(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시기관) 등이 실시 한 설문조사에서 마두로 후보가 10~15%정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선거에서는 1.59% 차이로 아쉽게 패함
- 반면 야당 성향의 일부기관에서는 야권통합연대인 민주연합(MUD)의 카프릴레스 후보의 승리를 조심스레 예측하기도 했음.
 - '12.10.7 대선(차베스 대통령의 4선 도전)시 카프릴레스가 득표한 660만표에는 이탈표가 거의 없으나 마두로 후보의 경우 기존 차베스정책의 계승주장 이외에는 독자적인 정책이나 카리스마가 없어 여당 내 장악력도 부족한 바 차베스 지지자들의 이탈 가능성 지적되었음

4. 후보 정책비교

	마두로	카프릴레스
근본 이념	• 21세기식 사회주의 건설정책 지속 • 정부 중심의 경제 통제와 국유화 • 식품 보조 판매망 확충 • 자국 생산 관련 정책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 확립 • 보건, 의료, 교육, 거주 등 취약한 분야문제 우선 개선 • 석유수입으로 새로운 정책 수행	• 지방 분권 : 중앙 편중적 권력 구조를 타파하여 지역 개발 도모 • 차베스식 복지 제도 유지 • 국가재정으로 극빈층에 더 많은 복지 제공 • 국영기업의 민영화 • 정부가 과거에 국영화한 기업을 효율성에 따라 민영화 추진
경제 정책	• 농업 생산성 증가, 생산설비 확충, 급격한 물가상승 발생 시 가격통제, 수출 장려 등 차베스가 추진했던 정책을 지속 및 강화 • '19년까지 기초식품의 90% 국내 생산 • 고리대금과 투기 적발 : 유통체인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와 가격 통제 강화 • 주거환경 : 주택부족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100만호 보수개선, 260만호 신축	• 주거환경개선 : 주택 300만호 이상 신축하고 빈민가 거주환경 개선 • 당국이 2003년부터 지속 해온 가격 및 외환통제를 점차 효율적으로 개선 •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법적 보장을 통한 신뢰 구축
석유 산업	• 일일 석유생산량 확대 : (현재)300만배럴->(2014년)400만배럴->(2019년) 600만 배럴 • ORINOC 석유벨트 초중질유 생산량 증대 : 업그레이드 설비 6대 도입하여 2019년까지 현재 생산량의 두 배인 600만 배럴까지 증가 • 자원 프로젝트 추진 : 연안을 중심으로 천연자원(가스, 금 등) 광산개발 프로젝트 추진 • 쿠바를 비롯한 카리브해, 남미 국가에 대한 PDVSA(석유공사)의 원유판매와 지원 유지	• 석유 생산 증대 : 석유 벨트 중심으로, 매년 최소 20만 배럴 증대 또는 마두로와 같은 공약 • 최근 몇 년간 정부 정책에 의거 외국 기업과 합작한 기업에 대한 조사 및 합의한 금융 지속 지원 • 카리브 및 남미에 석유 지원 가능한 중남미 내 다른 산유국 발굴
복지	• 사회 통합을 통한 극빈층 근절 (지난 14년간의 차베스 임기 동안, 빈곤층이 60%에서 21.1%, 극빈층은 21%에서 6%로 감소) • 국민 교육 수준 향상 : 초등교육 100%, 대학교육 90%이수 목표	• 지속 가능한 사회 복지 시스템 도입, 극빈층에 대해 재정적인 원조와 더불어, 해당가정의 가장에게 직업 훈련 실시 • 직업교육과 훈련 및 보건 증진, 학교 건설 및 리모델링, 공공 보건망 확충

치안	• 범죄 예방, 범죄 처벌, 순찰 강화 등을 통한 치안 개선 • 감옥 및 교도소 증설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마약 밀매, 상해 등의 범죄 타파 • 범죄자가 전과 기록 대신 봉사활동을 통한 재활지원	• 모든 범죄에 대한 관용을 없애고, 처벌 강화 • 범죄의 70%가 신고 되지 않고, 범죄자 10명 중 9명이 처벌 받지 않는 현 상황 타파
고용	• 향후 7년간 약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 : 선박, 차량 조립 관련 직업, 해외파트너 업무협정체결 등을 통한 산업기술자 양성 • 최저 임금 35~40% 상향 조정 : 5월(20%), 9월(10%), 12월(5~10%), Bs.3000(US\$476)으로 상향	• 향후 6년간 "질 좋은 일자리" 300만개 창설 : 건설 프로젝트, 수리, 공공 기본 시설 보수 및 유지 관련 직업 고용창출 • 젊은 계층의 첫 근무에 대한 기업과의 인센티브 계약과 특수 자격을 통한 취직 도모 • 최저 임금 40% 상향 조정 : 5월, 최저임금 40% 상향, 최저 임금 최소 Bs.3,000 달성을 통해, 구매력 회복 도모 • 신규투자 유치 : 세제상 인센티브와 신용장 발급 환경 개선, 국유화 중단

II. 차기정부 전망 및 과제

1. 마두로 정부 전망

□ 대미관계 및 시장개방

- 단기적으로 차베스의 반미의지 계승
 - 차베스의 '반미의지'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국민에게 인기를 얻는 방안으로 사용 가능
 -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모와 시장개방 가능성은 희박해짐
-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발전을 위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
 - 전문가들은 과거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를 포함한 여타 중남미 국가들이 오랜 경제적 피폐에서 벗어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데는 결국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이 기여했다는 데 주목
 - 미국 외교협회는 “이들 국가들이 미국 등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재정균형을 이룩하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제3의 길’을 택함으로써 활로를 찾는데 성공했다”라고 지적
 - 한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차베스 사후 미국은 베네수엘라와의 건설적인 관계 수립에 관심이 있음을 발표 한 바 있음.
- 미국과의 교류 현황
 - (자원)베네수엘라의 확인 원유매장량은 2965억 배럴로 세계 제 1위. 하지만 베네수엘라 원유는 일반 정유사가 쉽게 정제할 수 없는 중질유인 관계로 생산 원유의 40%를 정제시설을 갖춘 미국에 수출

- (물자)원유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와 기계류는 물론 천연가스와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
- (민간)현재 미국에는 20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살고 있어 민간 교류는 계속 진행되고 있음

□ 중국과의 관계

-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사회복지 프로젝트 및 주요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 또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중국 이외에는 베네수엘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2008년 이후 베네수엘라에 465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두로 대통령은 선거운동 중 당선 시 제일 먼저 중국을 방문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 * 차베스는 생전에 “나는 중국을 사랑한다”라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컸음

□ 석유산업 정책

- 석유산업의 특성상 생산성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충분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나 재정이 고갈된 상태에서 출범함에 따라 어려움 예상
 - * ‘12년 대선 및 연이은 재선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재정 상태는 좋지 않음
-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의 구조조정이나 사회복지정책 축소가 어려워 단기적으로는 기본틀의 변화 어려움
-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 자본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확대 예상

<만약 카프릴레스가 당선이 되었다면?>

-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시장 개방**

친기업 정책과 실용주의좌파 형식을 띄는 국정 운영.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추진 가능. “실용주의좌파”라는 성격에 걸맞게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국제 사회로의 더 나은 진출도모 가능성이 높음

- **쿠바를 포함한 기타 여러 카리브 연안 국가와의 관계 청산 가능**

카프릴레스가 내세우는 “쿠바에 대한 퍼주기식 원유 지원 철폐”조항에 따라, 기존 원유 지원을 받아오던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등 카리브 연안의 국가들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이 끊길 가능성이 농후(연간 70억불)

- **중장기적으로 석유산업의 비정치화, 효율성 제고 노력**

단기적으로는 재정이 고갈된 상황에서 석유공사(PDVSA)에 대한 구조조정은 파급효과나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커서 기본틀 유지.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유화 되어 있는 석유산업(합작투자기업은 PDVSA 자본 60%이상)의 효율화를 위해 외국자본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

2. 주요과제

□ 정치적 안정 추구

- 마두로의 집권 시 여당내 민간 및 군부 출신들 간 조정, 계파들 간의 조정을 통한 정치적 안정이 중요함.
- 기존 경력을 감안할 경우, ①마두로 대통령이 외교 및 전반적인 국정운영, ②디오스다도 카베요 현국회의장이 군부 및 주요 기업의 관리, ③라파엘 라미레스 석유공사(PDVSA) 사장이 재정 및 PDVSA운영을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 가능
- 특히 마두로는 이번 선거에서 1.59%의 표차로 당선되며 기존의 차베스 지지자들의 이탈이 목격하게 됨. 이에 차베스의 정책을 계승하되 본인 스스로의 카리스마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재정 정책

- 연간 30% 가까운 높은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급증, 통화정책 실패 대책 필요
 - 정부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13.2.13 대미달러화 환율을Bs4.3에서 Bs6.3로 32% 현지화 평가절하를 단행
 - 그러나 '12.10월과 '13.4월 대통령 재선거로 인한 과다 정부지출로 새 정부 출범 후 또 한 번의 평가절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 현지화 평가절하 더 심한 인플레를 유발, '13년 인플레이율은 30%를 넘을 수 있음

□ 석유산업 의존도 개선

- 석유산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다른 산업의 저성장과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음
 - 석유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나 '서민주택건설' 등 사회복지 프로젝트 투자와 균형을 맞춰야 함
 - 또한 석유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산업을 다양화하고 제조업을 활성화해 수입의존도를 줄여야 함
 - 외환제도개선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국내 및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해야 함

□ 폭력 및 치안불안

- 차베스 집권기간 중 연간 인구 10만명 당 70명이 총기살해를 당하는 등 치안이 극도로 악화
- 총기등록법 제정, 경찰력 강화 등 치안안정을 위한 노력필요

Ⅲ. 주변국 정세와 정책변화

<베네수엘라의 역내 영향력>

차베스로 대표되는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좌파 그룹의 실질적 리더 역할을 해왔으며 ALBA를 통해 그 영향력을 키워왔음. '12.7월에는 Mercosur에 가입하며 역내 국가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됨

1. ALBA(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

● 설립목적

- 미국의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설립에 반대하며 중남미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차베스와 카스트로 주도로 2006년 설립
- 상호공조와 보완성 원칙에 기초하여 회원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서 빈곤과 사회적 소외 제거를 강조하고, 특히, 기존 빈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비대칭적인 불균등 구조의 개선을 촉구

● 회원국

-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안티구아 바부다, 에콰도르, 세인트 빈세트 그레나딘, 도미니카 ('09년 온두라스의 쿠데타 이후 탈퇴)

● 중요성

- 연대주의, 상호주의, 기술이전 등에 근거하여 민중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 자본주의의 화폐거래가 아닌 재화와 서비스의 물물교환 방식 추진
- 차베스는 ALBA의 실질적 리더로 베네수엘라는 Petro Caribe 조약을 통해 중미 회원국들에 저가에 원유를 제공하며 대형 노릇을 해옴

2. Mercosur(남미공동시장)

● 설립목적

-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무역정책을 수용하면서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 일정을 규정하여 대외공동관세 수립, 분쟁해결, 거시경제정책 조정, 업종별 산업정책, 생산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한 경제협력을 제시하며 1991년 출범

● 회원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우루과이
- * 파라과이는 루고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13.4 대선까지 회원국 자격 정지 중이며 볼리비아는 현재 준회원국이나 정회원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

● 중요성

- Mercosur는 개도국간 통합체라는 속성과 지리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와 수정주의에 입각한 통합모델로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주목받아옴

① 쿠바

□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 정치적 관계

- 反美에 앞장서온 두 나라는 베네쿠바(Venecuba)로 불릴 만큼 관계가 밀접하였으나 차베스 사망으로 인하여 양국 간 동맹관계가 약해질 전망
- 베네수엘라는 하루 1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를 쿠바에 저리로 공급하고 있으며 쿠바는 베네수엘라에 의사를 파견하여 각 지방에 있는 빈민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 이와 같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빈민층으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았으며 쿠바는 저가에 원유를 공급받아 경제난을 일부 해소
- * 베네수엘라 파견 의료진의 수입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으나 현재까지 연간 약 30억불 상당의 원유를 50% 외상거래로 공급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최근 7년간 100억불 이상의 외상을 진 것으로 추정

○ 경제적 관계: 베네수엘라·쿠바는 '05.4월 다음의 경제협력관계에 서명

- 쿠바 제공내용
 - 베네수엘라에 600개의 의료진찰소 및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 베네수엘라에서 4만 명의 의사 및 5천명의 간호사 양성
 - 쿠바 의사 3만명 베네수엘라 파견
 - 베네수엘라인 10만명 쿠바에서 수술 지원
 - 베네수엘라에서 문맹퇴치, 스포츠 강의 프로그램 운영
 - 베네수엘라에 쿠바 외환은행 지사 설치
 - 베네수엘라의 104개 수출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
 - 베네수엘라로부터 4.1억불 상당의 산업재 및 소비재 수입
 - 쿠바 니켈 광산개발을 위한 베네수엘라와의 합작회사 설립

- 베네수엘라 제공내용

- PetroCaribe 프로그램을 통해 쿠바에 원유제공
- Cienfuegos 원유정제소 보수
- 베네수엘라 니켈/코발트 개발을 위한 쿠바와 합작회사 설립
- 쿠바 내 원유 탐사, 개발, 정제, 수출입을 위한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 지사 설치
- 아바나에 베네수엘라 산업은행 지사 설치
- 쿠바 104개 수출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

<PETROCARIBE(페트로카리베) 협의체>

- 베네수엘라는 석유 1배럴당 가격이 40불을 초과할 경우 쿠바 측에 25년간 파이낸싱 공급해주는 조건이며 40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17년간을 지원한다는 내용임
- 원유 1배럴당 가격대별로 파이낸싱 해주는 비중은 아래와 같음
 - 1배럴당 가격이 40불 이상일 경우 : 30%를 25년간 외상
 - 1배럴당 가격이 50불 이상일 경우 : 40%를 25년간 외상
 - 1배럴당 가격이 100불 이상일 경우 : 50%를 25년간 외상
(15/20/22/24/30불일 경우 각각 5/10/15/20/25%를 17년간 외상)

□ 차베스 사후 정세 변화

○ PetroCaribe에 대한 베네수엘라 내 불만고조에 대비

- 카프릴레스 야당 후보가 PetroCaribe 중단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로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동 협의체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주는 것임은 분명한 사실임
-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 역시 표와 직결되는 빈민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쿠바의 의료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단번에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음
- 아울러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은 양국 간 외교관계를 악화 시킬 뿐 아니라 그 동안의 외상거래 대금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점진적인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

□ 향후 경제정책 전망

○ 북부해저유전 개발

- 쿠바는 이미 수년전부터 Post Chavez 시대를 준비하면서 북부 해저유전 개발을 시작
- 북부해저유전지역을 59개 광구로 분할하여 Repsol(스페인), Petronas(인도네시아), PDVSA(베네수엘라) 등에 분양하였으나 '12년 연이은 탐사 실패로 위기감 고조
- 또한 쿠바 인근해안의 원유가 정제가 쉽지 않아 수출이 어렵다는 점과 바다에서 개발해야하기에 개발비용이 높다는 단점 내포

○ 신재생에너지 개발

- 유전 개발이 난관에 부딪히며 쿠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가장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사탕수수 찌꺼기(바게스)를 원료로 활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임
- 쿠바는 연간 200만 톤 이상의 사탕수수를 생산하며 '12년 말 영국 기업(Habana Energy)과 30MW급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에 합의하였으며 '13년 30MW급 발전소 5개를 추가 입찰 예정

○ 관광, 의료, 광산, 농업에 외국인투자유치 강화

- 쿠바 정부는 최근 관광, 의료, 광산(니켈) 및 농업(사탕수수)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 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외화획득을 증가시켜 원유를 PetroCaribe 없이도 외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됨

② 에콰도르

□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 정치적 관계

-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는 **ALBA(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의 주도국가**로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
- ALBA는 설립목적부터 미국과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주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 볼리비아는 **자원민족주의를 강조한 분배정책**을 시행하며 장기 집권 중에 있음
- ALBA 회원국 중 쿠바, 니카라과 등은 베네수엘라의 원조를 일방적으로 수혜하며 정치적 노선을 같이한 반면, 에콰도르는 경제적인 원조보다는 **정치적인 노선 자체만으로 베네수엘라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옴
 - * 쿠바는 100억 달러 이상, 니카라과는 25억 5천만 달러, 볼리비아는 16억 달러의 석유관련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에콰도르는 관련 부채가 없음
- ALBA를 통해 양국은 **반미 노선을 공유**하며 정치, 경제적인 협력을 확대해 왔음
 - * 2008년 글로벌 본드 이자 32억불에 대한 디폴트 선언, 같은 해 에콰도르 만타 공군기지의 미군사용 연장 불허, 2010년 석유 및 광산법 개정을 통한 자원 국유화, 2012년 줄리안 어산지 에콰도르 망명 허용 등 에콰도르의 급진적 정책은 양국의 중남미에서의 반미 노선에 정확하게 부합
- 2007년 코레아 대통령 취임 이후 에콰도르-베네수엘라 양국 간에는 100여개 이상의 정치,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MOU, 협정, 합의가 이루어 졌음. 그 중 중요한 협정은 아래와 같음
 - * 2013년 3월 8일,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가 계획되었으나, 차베스 사망으로 무산된 바 있음

< 에콰도르 - 베네수엘라 간 주요 협정 >

주요 협정	체결 연도
Petroecuador-PDVSA 간 에콰도르 태평양조선소 건설을 위한 합작기업 설립 MOU (효력 만료)	2007.1.16
에콰도르 Guayas 주 철강공장 건설을 위한 양국 간 의향서(효력 만료)	2007.1.16
에콰도르 농축산부-베네수엘라 식품부 간 식량안보와 자급을 위한 협력 MOU	2008.10.28
양국 간 결제 메카니즘 연구를 위한 MOU - 양국 간 무역통화인 SUCRE 발족	2009.5.23
양국 간 개발협력기금 조성을 위한 MOU - 교통, 보건, 환경, 교육, 식량자급, 농업, 관광업, 에너지, 인프라 분야	2009.7.10
에콰도르 광업부, 석유공사, 베네수엘라 에너지 석유부 간의 LNG 기지 건설 MOU	2009.8.29
에콰도르 산업부-베네수엘라 상공부 간 자동차 수입라이선스 배급 MOU - 에콰도르 對베네수엘라 자동차 수출쿼터 14,000대 부여받음	2011.6.7
양국 간 세관 효율화 협력 협정	2012.5.14

자료원 : 에콰도르 외교부자료 정리

○ 경제적 관계

- 양국의 무역규모는 12억 4498만 달러 규모로, 에콰도르가 7억 6,639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2012년)
- 에콰도르는 원유, 식품류, 자동차, 송유관 등을 주로 수출하며 역청유, 화학제품, 금속제조품 등을 수입
- 베네수엘라는 에콰도르에 자동차 수입 쿼터를 배정하여 연간 13억 8천만 달러 규모의 CKD 생산차량을 수입하고 있고, 에콰도르 제품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베네수엘라-에콰도르 자동차 분야 협력 관계>

- '11년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는 조립자동차생산 수출 등 무역협정 체결
- 현재 조립자동차 수출 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 타이어 수출도 진행. 주요 기업으로는 Aymesa, Neohyundai 및 Maresa회사 등이 있음
 - Aymesa : 기아자동차 CKD 조립생산(Rio, Sportage, Pregio, 연산 2만대)
 - Neohyundai : 에콰도르 현대자동차 독점딜러
 - Maresa : Mazda 소형트럭 BT 50 생산, 연산 8,000대 규모

- 양국은 무역대금 결제 시 ALBA 동맹의 가상 통화인 SUCRE를 사용하고 있는데 2012년 SUCRE를 통한 결제는 8억 3,47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SUCRE(수크레)는 미 달러화 및 유로화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환차손을 없애는 것은 물론 경제·통화 주권을 확보하는데 사용

□ 차베스 사후 정세 변화

○ 코레아 대통령 입지 강화에 대한 기대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명확

- 차베스 대통령 사망 이후 에콰도르 코레아 대통령은 외부로부터 ALBA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로 지목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관련내용을 부인
- 하지만 차베스 사후 각종 국제행사에서 중남미 정치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ALBA의 리더로서의 역할확대를 위한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분석됨
- 에콰도르의 경제규모와 원유 생산량을 고려할 때, 차베스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원 원조를 통한 역내 리더십 확보”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에콰도르 원유생산량은 베네수엘라의 18%(일일 생산 50.9만배럴)에 불과하며 매장량은 0.02%(62억 배럴)에 불과함. 또한 연간 원유생산량의 80%가 중국이 제공한 차관의 담보로 잡혀있어 원유 활용 재량권이 많지 않음.

< 중남미 주요 국가 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 현황 >

국가	매장량 (억배럴)	세계비중 (%)	순위 (세계)	순위 (중남미)	日産 (만배럴)	세계비중 (%)	순위 (세계)	순위 (중남미)
베네수엘라	2,965	17.9	1	1	272	3.5	9	2
브라질	151	0.9	14	2	219	2.9	11	3
멕시코	114	0.7	18	3	294	3.6	6	1
에콰도르	62	0.4	21	4	50.9	0.7	24	6
중남미 합계	3,368	20.5	-	-	1,032	13.1	-	-
세계 총계	16,526	100	-	-	8,357	100	-	-

자료원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2.6월)

- 반면, 에콰도르는 남미경제블록인 **Mercosur** 가입을 적극 검토 중. 이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중남미 통합이라는 정치적인 명분이 더욱 고려된 것으로 분석됨
- 베네수엘라는 2005년 안데안경제공동체(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를 탈퇴하고 2012년 7월 Mercosur에 가입. 당시 베네수엘라는 페루, 콜롬비아의 미국과의 FTA추진에 반발한 것으로 에콰도르의 메르코수르 가입 추진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가 가능
- 에콰도르의 Mercosur 가입이 현실화될 경우 Mercosur의 폐쇄적인 무역정책(보호무역정책 남발, 개별 회원국의 FTA 협상 불가)으로 에콰도르 경제의 개방성은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
- 미주볼리바르동맹을 통한 지역통합은 약화될 듯
- 마두로 대통령이 차베스의 후계자이기는 하지만 차베스만큼의 카리스마를 갖고 역내 국가를 지원할 힘은 부족할 것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중남미 좌파 블록의 자원 민족주의 경향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여짐

□ 향후 경제정책 전망

- 현 에콰도르 정부가 차베스 사후부터 마두로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對 베네수엘라 경제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③ 아르헨티나

□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 정치적 관계

-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선언 이후** '03년 키르츠네르 대통령때부터 **베네수엘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우호적인 정치·경제 협력관계를 유지
 - *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화 55억불의 아르헨티나 국채(3년 만기, '05-'08년)를 매입하고 석유도 공급
- '03년 집권한 아르헨티나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페로니즘**(빈민층 우선 지원 복지정책)에 입각한 **좌파 성향**의 정부로써 ALBA와 이념적으로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
- '05.11월 아메리카 정상회의에서 아르헨티나의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 반대를 표명하고, 에너지, 농산물, 금융 분야에 있어 베네수엘라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
- 중남미 좌파 국가들은 차베스 사후의 위기에 처한 **중남미 좌파** 그룹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주목**하고 있음.
 - * 중남미 좌파 블록으로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 쿠바 등이 있음

<포클랜드? 말비나스?>

-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아르헨티나명 말비나스) 섬'의 영유권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음
- 중남미 좌파 국가들은 '12.4.5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ALBA 정상회의에서 포클랜드 깃발을 단 선박의 자국 항구 정박을 금지키로 합의하고, 이날 회의를 주재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영국이 아르헨티나를 무력 공격할 경우 아르헨티나는 혼자가 아닐 것"이라며 ALBA 회원국의 공동 군사대응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음.

○ 경제적 관계

- '12년 기준 아르헨티나 정부 통계에 따르면 양국 교역은 22억 88만 달러 규모로 아르헨티나가 22억 38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아르헨티나는 오일, 고기, 곡물, 낙농품, 농기계 등을 주로 수출하며 (전체 수출의 75%가 식품류) 석유, 화학제품, 알루미늄, 자동차, 세척제, 고무제품 등을 수입
- 하지만 아르헨티나 통계청 자료와는 달리 실제 원유 수입은 8~10억불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교역은 공식 자료보다 10억 불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추정
 - * 통계청의 베네수엘라 석유수입은 3천만불에 불과
- 아르헨티나는 특히 “빈민층 지원 확대”에 베네수엘라와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의 아르헨티나 공급 등으로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차베스 사후 정세 변화

○ 차베스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와 지속적인 우호관계 유지

- 차베스 사망과 관계없이 중남미 좌파 그룹을 대표하는 아르헨티나 크리스티나 정부와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념적인 동지애를 바탕으로 지속적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임.
- 다만, 중남미 좌파 그룹의 리더의 역할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에 대해 해당국별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관계정립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각종 국제행사에서 ALBA 회원국들이 리더로서의 역할확대를 위한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정식 회원국이 아닌 아르헨티나는 어느 정도의 중재 기능을 하며 향후 지위를 정립하게 될 것

○ Mercosur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통합 움직임 가동

- 현재의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에 준회원국인 볼리비아가 가입을 위해 협상을 하고 있으며 추가 회원국들이 유입된다면 메르코수르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및 지역적 통합 움직임이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가 '12.8월 체결한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를 의식하며 메르코수르의 영향력을 키우고자 노력 중임

- 만약 Mercosur 혹은 최근 체결된 태평양 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 한다면 ALBA를 통한 지역통합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 향후 경제정책 전망

- 아르헨티나 정부는 차베스 전 대통령과 그 후계자인 마두로 부통령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對베네수엘라 경제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간 무역규모는 지난 10년간(2003-2012) 아르헨티나의 대 베네수엘라 수출은 1,600% 증가하였는데 수입은 270% 증가에 그쳐, 아르헨티나는 양국 간 경제 및 교역구조의 변경을 원하지 않고 있음.

* 베네수엘라는 2003년 아르헨티나의 36위 수출대상국이었으나 2012년 6위로 부상

④ 콜롬비아

□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 정치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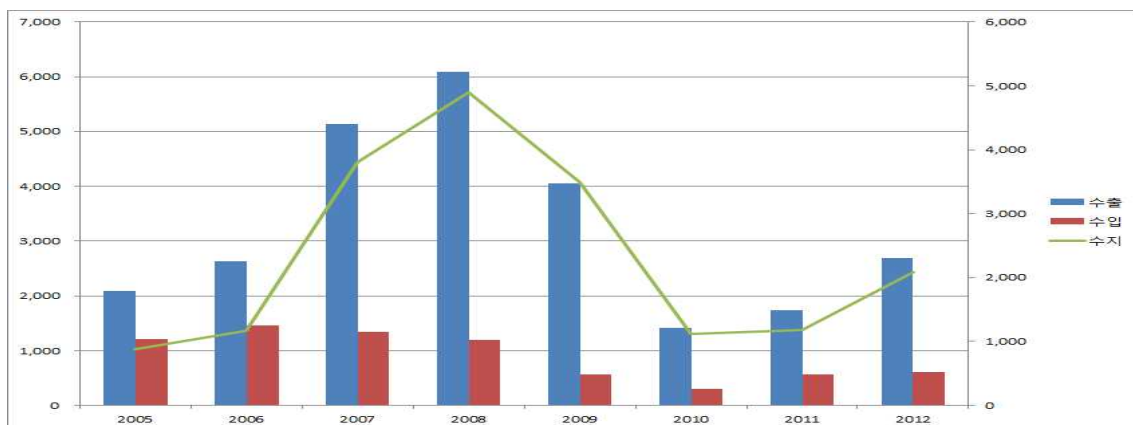
- 콜-베네수엘라 관계는 20세기부터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고 있으며 해양 영토 분쟁이 관계 악화의 중심이었음.
- 또한 우리베 전 대통령 재선 당시 차베스 정권의 콜롬비아 게릴라 지원설로 인해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된 바 있음.
- 특히 지난 2008년 콜롬비아 정부가 게릴라 소탕작전 중 에콰도르 영토에 군사공격을 감행하면서 차베스는 주 콜롬비아 대사관을 폐쇄하기도 함.
- 2009년에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구매한 스웨덴제 탱크공격용 로켓을 콜롬비아 반군이 사용하고 있다는 콜 정부의 주장에 대해 베네수엘라는 재차 주콜 대사 소환 및 콜롬비아 자동차 수입 금지 등의 조치로 대응하였음.
- 그러나 산토스 정권 출범 이후 양국의 정치적 관계는 표면적으로 개선되었음. 콜롬비아 정부는 차베스 사망으로 인한 양국의 정치관계 변화 전망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나 대선 결과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기대하는 모습

○ 경제적 관계

- '12년 기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와의 교역은 총 33억 달러 규모로 수출과 수입 각각 27억 달러와 6억 달러 기록
- 양국 경제 관계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정치관계에 영향을 받아왔으며 특히 베네수엘라는 교역 중단을 위협수단으로 활용

- '09년까지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의 2위 수출대상국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에 달했음.
- 그러나 '09년과 '10년 콜롬비아 정부가 차베스 정권의 콜 반군 지원의혹제기 및 베네수엘라 정부의 외교관계 단절 위협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교역량 대폭 감소

<콜-베네수엘라 연도별 교역 추이>



자료: WTA

- 그 밖에 차베스 정권이 해결하지 못한 콜롬비아와의 경제적 현안은 천연가스 및 전력분야 협력, 양국 국경지대 도로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공동연구 및 2007년 국영화된 콜롬비아 투자 진출기업 Cementos Argos 해결 문제 등임.
-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권교체 및 신정부 출범에 콜롬비아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베네수엘라와의 관계개선 및 정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전략이 수립될 것
- 양국간 투자는 현재 미미한 수준이나 향후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개선이 실현될 경우, 외국인 투자 리스크 감소, 접경지역 개발수요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개선이 콜롬비아 반군 소탕 및 평화 협상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 기대

□ 차베스 사후 정세 변화

- 차베스 대통령의 사망은 현재 진행 중인 콜롬비아 정부와 FARC 반군 간의 평화협상에서 콜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차베스 정권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콜롬비아 FARC 반군의 지원자로 인식되어 왔음.
- 또한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하는 에콰도르, 니카라과 등 주변 좌파 국가의 연대가 약화됨에 따라 콜롬비아로서는 안보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향후 경제정책 전망

- 콜롬비아 정부는 차베스 전 대통령 후계자인 마두로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경제정책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IV. 우리기업 진출전략

① 베네수엘라

1. 경제블럭을 활용한 우회 진출

- 베네수엘라는 작년 10월, 금년 4월 2차례의 대선과 과도한 사회복지 프로젝트 추진으로 재정적자가 심화 (GDP대비 7%이상)됨에 따라 수입용 외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외환이 적정히 배정되지 않아 한국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 반면 경제 및 정치적 동맹성격인 경제블록 내 교역에 대해서는 무관세, 대금결제의 우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적극 활용 필요

□ ALBA : 회원국 내 조립라인 설립

- (사례)현대·기아자동차 베네수엘라 최우방국 에콰도르에 조립라인 운영
 - 현재 3,000cc 이상 차량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에콰도르 생산·조립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수입쿼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일부 허용
 - * 2012년 현대 상용차량 2800대, 기아 4500대 쿼터 승인

□ 메르코수르 활용 : 생산기지 및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

- 베네수엘라가 2012.7.31일부로 Mercosur의 정회원국이 됨에 따라 '13.1월부터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 일부 민감한 품목(자동차등)을 제외하고는 면세 수출이 가능해짐

-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리스크는 아직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베네수엘라가 갖는 Mercosur 시장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중요성, 자원대국으로서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기업의 투자진출이 필요함
- 특히 차베스집권 14년간 1,000개가 넘는 기업이 국유화 되면서 제조업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신정부 출범 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펼 것이 예상되며 Mercosur권역에 대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외환 배정에 있어 상당한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

2.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조를 통한 진출

- 베네수엘라에서의 비즈니스는 “정치적 관계”가 최우선 고려요소이므로 한국기업의 원만한 현지 진출과 경제적 성과를 위해 우리정부의 양국 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과 민간기업의 진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3. 신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인맥 구축

- 신정부출범과 함께 새로이 부상하는 인맥과 관계 구축을 서둘러야 함. 석유공사(PDVSA) 등 자원관련 기업들은 단 기간내 구조조정이 어려움으로 기존 인맥과 더불어 핵심인사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신규인맥 발굴 노력 필요

<마두로 정권출범시 핵심인사 예상>

성명	기존지위	담당분야 및 비고
Nicolas Mauro	임시대통령	외교 및 행정수반
Diosdado Cabello	국회의장	군부+핵심기업관리
Rafael Ramirez	석유공사(PDVSA)사장	석유공사운영 및 재정관리

Jorge Alberto Arreaza	부통령 (13.3.8~)	차베스 전대통령 사위 전과기부 장/차관역임
Elias Jauas	외교장관	전부통령, 전직교수
Argenis Chavez	전력공사(Corpoelec)사장	차베스 전대통령 막내동생 전력분야담당, 전기엔지니어출신
Cilia Flores	검찰총장	마두로 대통령 부인

자료:카라카스무역관

4.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노력 필요

-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리스크와 극심한 외환통제에 따르는 대금 결제상의 문제로 한국의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이 어려움
- 베네수엘라는 정부 프로젝트 및 구매중심의 시장으로 우리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통한 프로젝트 참여나 투자진출이 필요
- 우리 중소기업 수출시 주재국의 외환통제로 인한 수출대금 결제 지연 등 리스크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의 종합상사가 진출하여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② 쿠바

- 쿠바는 우리나라와 미수교국으로 투자보장협정조차 체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대규모 투자가 다소 부담이 되는 상황임
- 수출 또한 1년 내외의 외상거래 요청으로 우리나라의 대 쿠바 수출액이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7천만불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 외상 거래로 인한 수출대금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에이전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쿠바에는 현재 53개국 634개의 외국 지사들이 존재하며 이들 중 일부가 중개업을 병행하고 있음
 - ☞ 스페인(91개사), 파나마(90개사), 이태리(41개사), 캐나다(40개사), 멕시코(31개사), 중국(29개사), 일본(10개사), 베네수엘라(5개사) 등
- 연간 50만 달러를 3년간 쿠바로 수출하여야 쿠바내 지사설립 자격이 주어지며 설립 후 50만 달러 수출에 미달시 지사폐쇄

- 쿠바 정부에서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변화에 대비해 집중 육성하는 **북부해저유전, 신재생 에너지(바이오매스), 관광업, 농업(사탕수수), 광업(니켈), 의료업 분야**에 우리 기업의 관심이 필요

③ 에콰도르

□ 우회 수출기지로서의 에콰도르 전략적 활용 필요

-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에콰도르를 베네수엘라 수출의 우회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양국은 교역에 있어 달러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상통화 수크레(Sucre)를 사용 베네수엘라 외환관리위원회(CADIVI)의 승인에 소요되는 장시간의 미결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음
 - * 에콰도르는 달러화 사용국가로 수크레-달러간 고정환율을 이용한 안정적 수익 달성 가능
- 한편 수크레 활용 시 거래를 위한 에콰도르-베네수엘라 정부의 개입이 있는 바, 각국의 현지 사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베네수엘라가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약품, 식료품 분야**의 진출이 가장 유망하며, 베네수엘라의 한국산 자동차 점

유율이 50% 인 것을 고려할 때 자동차 부품의 진출도 유망

④ 아르헨티나

□ Mercosur를 활용한 보호무역주의 타파

-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재 극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통해 각종 수입규제와 외환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한편, 베네수엘라는 '12.7월 Mercosur에 가입하였으며 신정부에서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조업활성화대책을 펼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를 통한 베네수엘라 진출보다는 베네수엘라를 통한 Mercosur 진출을 계획하는 것이 유의미함

⑤ 콜롬비아

□ 자원개발 및 인프라 시장 주목

- 차베스 사망 후,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양국 접경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 협력 가시화 가능
- 아마존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 국경지역 교류 확대를 위한 도로, 공항, 항만 등의 국가 간 개발 프로젝트 증가 전망

□ 중미시장 통합 진출 거점 활용

- '11.11월 체결된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간 부분적 자유무역협정은 콜롬비아를 거점으로 한 베네수엘라 시장 진출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또한 '13년 타결된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 된다면 콜롬비아-베네수엘라 관계 개선에 따라 해당국을 포함한 중미시장 통합 거점으로서의 콜롬비아 시장 잠재력 강화될 것으로 보임.

2013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오바마 재선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13.1
13-002	2013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1
13-00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공작기계 (머시닝센터) -	2013.1
13-004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골프용품 -	2013.1
13-005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안경테 -	2013.1
13-00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에스터 단섬유 -	2013.1
13-007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프로필렌 테이프 -	2013.1
13-008	선진국의 미래산업 육성정책	2013.2
13-009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광케이블 -	2013.2
13-01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전동공구 -	2013.2
13-01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컴퓨터주변기기 -	2013.2
13-01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펌프 -	2013.2
13-013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및 시사점	2013.2
13-014	한-콜롬비아 FTA 효과 및 활용방안	2013.2
13-015	떠오르는 이라크 재건설장을 선점하라	2013.2
13-016	주요국 환율변동에 따른 해외시장 동향과 진출여건	2013.2
13-017	엔저하의 수출 경쟁력 현황 및 전망	2013.2
13-018	한미 FTA 발효 1주년, 대미 수출 성과 분석	2013.3
13-019	일본의 대인도 진출전략 및 대응방안	2013.3
13-020	독일 직업교육 훈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	2013.3
13-02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주요 시장 동향 <기타 무선통신기기>	2013.3
13-02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플라스틱 가공제품 -	2013.3
13-02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편직물 (인조섬유제) -	2013.3
13-024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멕시코	2013.3
13-025	인도의 CSR 정책과 시사점	2013.3
13-02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유리 저장 용기 -	2013.3
13-027	미국-EU FTA 추진현황과 향후 시사점	2013.3
13-028	日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현황 및 시사점	2013.3

13-029	2013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4
13-03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X선 및 방사선기기부품 >	2013.4
13-03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초화장품 -	2013.4
13-03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합성수지·합성고무 -	2013.4
13-03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밸브·기타기계류 -	2013.4
13-034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스키 헬멧>	2013.4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대만시장에서 한류 활용하기	2013.1
13-002	[중국 석학에게 듣는다] 2013 중국 경제 전망	2013.2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해외 주요국 투자인센티브 현황 및 사례조사	2013.1
13-002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2013.1
13-003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3.1
13-004	2012년도 북한의 대외교류동향	2013.2
13-005	GCF시대에 대비한 세계그린프로젝트 수주방안	2013.3
13-006	국가HR 개선 방안 연구	2013.3
13-007	2009~2012 KOTRA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성공사례집	2013.3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201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3.1
13-002	2013 중국3대 유망시장 설명회	2013.1
13-003	2013년 전략시장 협력 파트너십 포럼	2013.1
13-004	Iraq-Korea Business Forum	2013.3
13-005	Reshoring to KOREA - 국내 U턴기업 지원제도 및 투자환경 설명회 -	2013.4

작성자

◆ 카라카스 무역관	김철희
◆ 아바나 무역관	서정혁
◆ 키토 무역관	유성준
◆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박종근
◆ 보고타 무역관	성기주
◆ 신흥시장팀	안성희



Global Market Report 13-035

Post Chavez, 변화와 전망

발행인 | 오영호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3년 4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